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 아동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

The Causal Relations of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and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the Children's Behavior Problems, Locus of Control and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경님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Prof. : Lee, Kyung-N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요약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of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behavior problems, locus of control and peer victimization.

The subjects were 360 children of 4th and 6th grade and their mothers. The instruments were Peer Victimization Scale, CBCL,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Childrearing Behavior Scal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1) The type of peer victimization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irls and boys. That is, boys were more focused on overt victimization than girls.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grade difference in overt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 (2) Mother's rejection-restriction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social withdrawal behavior problems, external locus of control predicted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24% of the variance of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was explained by these variables.
- (3) Mother's rejection-restriction childrearing behavior was the first contribution factor and had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through children's locus of control on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And children's social withdrawal behavior problems was second contribution factor and had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Children's locus of control had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through children's social

withdrawal behavior problems on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Mother's warmth-acceptance and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childrearing behavior had indirect effect through children's locus of control on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주제어(Key Words): 또래괴롭힘(peer victimization),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 내외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어머니의 양육행동(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I. 서론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바람직한 사회성을 발달시키게 된다. 또한 아동은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되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인지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이후 청년기나 성인기의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Bagwell, 1998). 그러나 아동기의 또래관계가 항상 바람직한 발달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최근 또래간의 따돌림, 놀림, 소외시키기, 집단폭력 등 또래괴롭힘의 빈도와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어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심리적 상처와 학교부적응, 등교거부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자살까지 이어지는 많은 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또래괴롭힘에 관한 연구는 국외(Boulton & Underwood, 1992; Crick & Grotpeter, 1995, 1996; Olweus, 1993, 1996)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곽금주, 2000; 도현심, 최미경, 1998; 박미연, 2000; 이점숙, 유안진, 1998; 임지영, 1998) 있다. 지금까지 또래괴롭힘에 대한 정의는 일치되지 못하고 있지만 또래괴롭힘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는 Olweus(1991)의 정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을 Olweus의 정의에 따라 한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또래의 부정적인 행동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또래괴롭힘을 당한다(victimization by peers)고 정의한다. 이때의 부정적 행동이란 때리거나 차며 밀거나 욕하고 별명을 부르는 등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가하는 직접적인 괴롭힘과 같이 놀아주지 않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말을 걸지 않

아 소외시키는 등 심리적 괴롭힘을 주는 간접적인 괴롭힘 모두를 포함한다(이점숙, 유안진, 1998). 이와 같이 또래괴롭힘은 신체적, 언어적 방법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명백한 괴롭힘과 또래관계에 해를 주기위해 또래로부터 고립시켜 간접적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관계상의 괴롭힘의 큰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Crick & Bigbee, 1998). 또래괴롭힘은 이러한 부정적 행동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임이 강조되지만 최근 단한번의 심각한 괴롭힘은 행동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괴롭힘으로 간주되기도 한다(Olweus, 1993).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겪는 사회·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이다.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은 자아존중감이 더 낮으며 불안해하고 외로워하며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도현심, 1998; 양원경, 도현심, 1999; 이춘재, 곽금주, 2000; 임지영, 1998; Olweus, 1993; Slee & Rigby, 1993). 또한 이들은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과 함께 학교 적응이 떨어지며(최진희, 2000) 이로 인해 학교가기를 싫어하며 마침내 등교거부에 이르게 되는 (Boulton & Underwood, 1992) 심각한 부적응을 야기하게 된다. 더욱이 아동기의 또래거부와 괴롭힘의 경험은 청년이나 성인기의 정신병리나 비행, 범죄 등과도 관계 있다고 보고 (Parker & Asher, 1987) 되고 있어 또래괴롭힘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경각 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또래괴롭힘과 적응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들의 어떤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배경이 또래괴롭힘을 야기하게 하는가 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발달적 변화와

성차를 살펴보고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변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발달적 변화를 밝힌 연구들(이영미, 1989; 임지영, 1998; Olweus, 1993; Slee, 1994)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의 또래괴롭힘은 감소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3학년과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이점숙, 유안진, 1998)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관한 성차도 일관된 결과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또래괴롭힘의 피해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받는데 일치하고 있으나 또래괴롭힘의 유형에 따른 성차를 보면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즉, 때리고 차고 밀며 위협하는 신체적인 명백한 괴롭힘은 남아가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없는데서 욱하기, 소문 퍼뜨리기, 어울리지 않기, 소외시키기 등 간접적인 관계에서의 괴롭힘은 여아가 더 많이 사용한다는 보고(Cowen & Underwood, 1995)와 관계에서의 괴롭힘은 성차가 없다는 보고(이점숙, 유안진, 1998; 임지영, 1998; Crick & Grotpeter, 1996; Olweus, 1993)로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변인이 아동의 행동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부적응 행동문제는 또래에게 거부되거나 배척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Hodges, Malone & Perry, 1995; Schwartz, Dodge & Coie, 1993). 또래괴롭힘을 받는 아동의 행동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이점숙, 유안진, 1998; 최진희, 2000; Vosk, Forehand, Parker, & Richard, 1982)에 의하면 미성숙하거나 불안, 위축과 같은 내면적 행동문제와 과다, 공격행동 같은 외현적 행동문제의 아동은 더 많은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다. 미성숙하며 위축되고 불안한 행동문제로 인하여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은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피해자(passive or submissive victim)로 과다하고 통제능력이 부족한 공격적인 행동문제로 또래괴롭힘을 받는 아동은 도발적인 피해자(provocative victim)로 구분된다.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피해자아동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신

체가 왜소하거나 위축되어 가해자 아동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취약성(vulnerability)을 지닌다. 즉 이들 수동적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신체적, 심리적 공격에 쉽게 포기하여 스스로 불안정하고 무가치함을 보이게 된다. 이리하여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공격에 대한 상대방의 공격이나 부정적 대가의 위협이 없으므로 쉽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괴로움을 주게 된다. 괴롭힘의 가해자들은 충동적이고 폭력에 대한 신념을 가지며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Olweus, 1993), 허약하고 방어에 취약한 수동적인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욕구충족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위축행동문제를 가진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며 이러한 가해자의 공격행동은 강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10-20% 정도의 아동이 위축되고 불안한 행동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가해자들의 희생이 된다는 보고(Berk, 1997)도 있다.

과다하고 공격적인 행동은 또래를 괴롭히는 아동의 특성인 동시에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특성이기도 하다.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의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최진희, 2000; Perry, Kasel, & Perry, 1988)에 의하면 불안하고 위축된 행동의 아동 외에 과다하고 공격적인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도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따돌려지며 이들은 도발적 피해자로 구분된다. 이들 아동들은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주의집중의 문제를 가지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또래들을 짜증나게 하고 긴장하게 한다. 이러한 아동들의 행동특성은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상호작용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회피되는 만성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동적인 피해자와 도발적인 피해자 모두 그들의 행동문제로 인하여 또래로부터 괴롭힘이 야기됨을 볼 때 아동의 행동문제는 또래괴롭힘의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또래관계가 원만한 아동들은 스스로 그러한 또래지위를 얻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발달시키고자 노력한다. 만약,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거나 거부될 때,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반성하고 또래관계를 개선시키려 노

력하는 아동은 또래괴롭힘의 피해로부터 예방되고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곽금주, 2000).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내외통제성향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즉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따돌림을 당한다는 느낌이 올 때, 그 원인을 자신의 태도, 행동, 노력 등 내재적인 것으로 지각하며 또래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재적 통제소재의 아동은 또래괴롭힘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의 원인을 외부적인 힘이나 환경에 있다고 지각하므로 사건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외재적 통제소재의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노력하거나 대처하지 않으므로 더 쉽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내외통제성향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Goetz와 Dweck(1980)은 4,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거부에 대한 인과귀인과 또래거부에 대한 반응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또래거부에 대하여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귀인하는 아동은 또래거부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Sobol과 Eam(1985)은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측정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귀인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또래거부아동은 또래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는, 안정적이고 통제불가능한 것으로 귀인함을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고독한 사람들은 사회관계의 실패를 변화될 수 없는 자신들의 성격적 결함에 귀인 한다는 보고도 있다(Anderson, Horwitz, & French, 1983).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내외통제소재의 관계를 유추하게 한다. 그런데 아동의 내외통제성향이 또래괴롭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아동의 적응과 행동에 중요한 변인이므로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내재적 통제소재를 지닌 아동은 자신의 행동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상황과 환경에 적절하게 조절하므로 행동문제가 적으리라 가정하고 이를 연구한 결과(이경남, 1999) 내재

적 통제소재성향의 아동일수록 행동문제가 적음이 밝혀졌다.

위에서 살펴본 아동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같은 개인적 변인이외에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중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은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밝혀지고 있다(이지원, 1999).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괴롭힘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Finnegan, Hodges & Perry, 1996)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여아의 또래괴롭힘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도현심, 1998)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 거부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거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경험한 아동들은 더 불안하고 취약하므로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한다고 보고(Olweus, 1993; Troy & Sroufe, 1987)되고 있다. 유사하게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된 아동은 부적절한 또래관계를 보이며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Berkowitz, 1990).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환경적 요인으로 중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다루어졌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중희, 1983; 조정래, 1989)들을 종합하면, 어머니의 거부적인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외재적 통제소재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에 일치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들(김선희, 2000; 강차연, 장연집, 1999; 이경주, 신희식, 1998; Chen, Rubin & Ci, 1997)에 의하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키며, 반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수준을 높이는데 일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아동의 또래괴롭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상호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모두 함께 다루어 상호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더욱이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이들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도 없었다. 아동들의 어떠한 개인적 특성과 환경변인이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연구는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아동의 또래괴롭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상호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아동의 또래괴롭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상호인과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또래괴롭힘(관계상의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은 성과 학년(4, 6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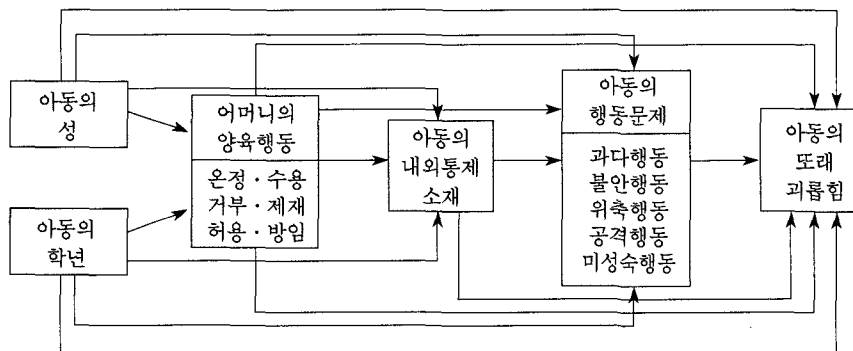
둘째, 아동의 또래괴롭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 성, 학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아동의 성, 학년,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직접, 간접 관계에 대한 개념적 인과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 및 6학년 아동 360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본 연구대상의 선정이유는 이 시기쯤 또래괴롭힘이 비교적 고정되고 확고해지며(Perry, Kusel & Perry, 1988),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연령이 아동중기 이후이고(Mussen, 1984) 4학년과 6학년이 초등학교 중기와 후기를 대표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해 아동의 학년별 성별 분포를 보면 4학년 177명(49.1%), 6학년 183명(50.8%), 남아 185명(51.3%), 여아 175명(48.6%)으로 구성되어 학년별 성별 분포가 비교적 고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아버지 179명(49.7%), 어머니 225명(7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이상은 아버지 162명(45%) 어머니 105명



<그림 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의 가설적 인과모형

〈표 1〉 연구대상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학년	4학년	177
	6학년	183
성별	남아	185
	여아	175
어머니연령	30~40세	223
	41~50세	133
	51~60세	4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0
	고졸	225
	초대졸이상	105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19
	고졸	179
	초대졸이상	162
소득	150만원 이하	63
	151~250만원	200
	251~350만원	56
	351만원이상	41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52
	사무기술직	61
	자영 상공인·피고용인	201
	기타 및 무직	46

(29.1%)이었다. 가계소득은 151-250만원이 200명 (55.5%)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질문지로서 아동용으로 또래괴롭힘척도, 내외통제소재척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어머니용으로는 행동문제척도 및 배경변인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1) 또래괴롭힘 척도

아동이 지각한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지영(1998)의 또래괴롭힘 척도에서 '관계상의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에 관계되는 9문항들을 토대로 이점숙과 유안진(1999)의 또래괴롭힘 척도를 참조하여 모두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구인타

당도를 검증한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두 요인 모두에 높은 부하량을 보인 1문항이 제외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 33.07%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관계상의 괴롭힘'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 26.80%를 설명하였으며 '명백한 괴롭힘'으로 명명하였다. 이리하여 모두 14문항이 사용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또래괴롭힘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관계상의 괴롭힘 .91, 명백한 괴롭힘 .86, 전체 .92로 나타났다.

2) 행동문제척도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Edelbrock(1991)이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한미현과 유안진(1995)이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아동행동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척도는 과다, 불안, 위축, 공격, 미성숙 행동의 5 하위영역의 각 8문항씩 모두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3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평가한 아동의 행동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과다 .75, 불안 .75, 위축 .72, 공격 .74, 미성숙 .72, 전체 .89로 나타났다.

3) 내외통제소재척도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측정하기 위하여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아동통제소재척도(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를 기초로 하여 Connel(1985)의 아동의 통제지각에 대한 다차원적 척도를 참조하여 내재적 통제소재 및 외재적 통제소재를 묻는 각 10개 문항씩 총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인의 전문가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외재적 통제소재성향을 지니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71로 나타났다.

4) 양육행동척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영애(1995)의 어머니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각 하위영역 모두 8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가지는 문항을 선정하여 온정·수용 21문항, 거부·제재 14문항, 허용·방임 8문항 모두 4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로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더 수용·온정적이며, 더 거부·제재하며, 더 허용·방임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영역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온정·수용 .94, 거부·제재 .89, 허용·방임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0년 12월 4일부터 9일까지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에게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협조를 얻어 실시되었다.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한 뒤 각 학급교실에서 아동용 질문지가 배부, 회수되었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편으로 전달되고 일주일 내로 담임교사에 의해 회수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은 이원변량분석을 연구문제 2는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

아동의 또래괴롭힘이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또래괴롭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아동의 관계상의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점수에 대하여 성과 학년에 따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관계상의 괴롭힘의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성 [F(1,356)=.72, p>.05]과 학년[F(1,356)=.88, p>.05] 및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 [F(1,356)=3.32,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동이 경험하는 관계상의 괴롭힘은 남아와 여아, 4학년과 6학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명백한 괴롭힘의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F(1,356)=15.79, p<.001]가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F(1,356)=.14, p>.05],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F(1,356)=1.77, p>.05]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동이 경험하는 명백한 괴롭힘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으며, 이러한 차

<표 2> 학년별, 성별 아동의 또래괴롭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또래괴롭힘		전 체
	관계상의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4학년 남	13.64(6.79)	13.57(5.88)	27.20(11.44)
4학년 여	11.96(5.26)	12.00(5.08)	23.96(9.67)
4학년 전 체	12.79(6.08)	12.78(5.53)	25.57(10.68)
6학년 남	11.90(5.60)	14.13(6.25)	26.03(10.81)
6학년 여	12.51(6.24)	10.99(5.11)	23.50(10.51)
6학년 전 체	12.19(5.90)	12.66(5.94)	24.84(10.06)

<표 3> 아동의 성별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이원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관계상의 괴롭힘	성	25.54	1	25.54	.72
	학년	31.42	1	31.42	.88
	성×학년	118.37	1	118.37	3.32
	오차	12694.64	356	35.66	
명백한 괴롭힘	성	498.92	1	498.92	15.79***
	학년	4.46	1	4.46	.14
	성×학년	55.87	1	55.87	1.77
	오차	11251.84	356	31.61	

***p<.001

이는 4학년과 6학년에 고른 것으로 해석된다.

2. 아동의 또래괴롭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1) 아동의 또래 괴롭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관관계분석

아동의 또래 괴롭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아동의 또래 괴롭힘은 아동의 위축행동문제($r=.28, p<.001$), 내외통제소재($r=.32, p<.001$),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r=.40, p<.001$), 허용·방임 양육행동($r=.2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인 아동의 성($r=-.13, p<.05$),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r=-.30, p<.00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아동의 행동이 위축될수록, 통제소재가 외재적일수록, 또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제재적이며 방임적일수록 아동은 또래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것으로 지각할 때 또한 남아보다 여아가 아동은 또래 괴롭힘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위축행동문제는

외재적 통제소재와($r=.22, p<.001$)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r=.16, p<.01$), 허용·방임 양육행동($r=.12, p<.05$)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부적상관($r=-.15, p<.01$)을 보였다. 즉 아동의 통제소재가 외재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은 더 위축된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위축행동문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부적상관($r=-.27, p<.001$)을, 거부·제재 양육행동($r=.29, p<.001$), 허용·방임 양육행동($r=.36, p<.00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은 내재적 통제소재를 보이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거나 방임적일수록 아동은 외재적 통제소재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경로분석

<표 4>에서 아동의 또래 괴롭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아동의 성, 위축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거부·제재 양육행동, 허용·방임 양육행동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표 4> 아동의 또래 괴롭힘과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아동의 연령	1.0											
2. 아동의 성	-.03	1.0										
3. 과다행동문제	-.05	.15**	1.00									
4. 불안행동문제	-.12	.12**	.39**	1.00								
5. 공격행동문제	-.05	.02	.52***	.25***	1.00							
6. 위축행동문제	-.00	.00	.24***	.39***	.36***	1.00						
7. 미성숙행동문제	-.10	0.3	.53***	.44***	.51***	.43***	1.00					
8.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05	.07	.06	.05	.08	.22***	.12*	1.00				
9.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01	.02	.04	-.05	-.03	-.15**	-.03	-.27***	1.00			
10.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	-.07	-.14**	.03	.09	.07	.16**	.04	.29***	-.54***	1.00		
11.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11*	-.10*	.06	.02	.10	.12*	.05	.36***	-.24***	.32***	1.00	
12. 아동의 또래 괴롭힘	-.03	-.13*	.05	.04	.10	.28***	.10	.32***	-.30***	.40***	.26***	1.00

* $p<.05$ ** $p<.01$ *** $p<.001$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그림 1>에서 설정된 인과모형에 따라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알기 위해 각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표 4>에 의해 검토한 결과 각 .60을 넘지 않았고 Durbin Watson계수가 1.78-2.02의 범위에 있으므로 분석에 무리가 없음이 판단되었다. 먼저, 각 종속변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아동의 통제소재는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beta = .29, p < .001$), 온정·수용 양육행동($\beta = -.14, p < .05$), 거부·제재 양육행동($\beta = .12, p < .05$)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총영향력은 18%이었다. 이중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온정·수용 양육행동, 거부제재 양육행동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방임적일수록 또한 거부적일수록 아동은 외재적 통제소재를 가지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은 내재적 통제소재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 5>에 의하면 아동의 위축행동문제는 내외통제소재에 의해 영향($\beta = .18, p < .001$)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영향력은 6%정도였다. 즉 아동의 통제소재가 외재적

일수록 더 위축된 행동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또래 괴롭힘은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beta = .25, p < .001$), 아동의 위축행동문제($\beta = .19, p < .001$), 내외통제소재($\beta = .16, p < .01$)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총 영향력은 24%이었다. 이중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아동의 위축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지각할수록 위축된 아동일수록 또한 아동의 통제소재가 외재적일수록 아동은 또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동의 성은 아동의 또래 괴롭힘, 위축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에 따라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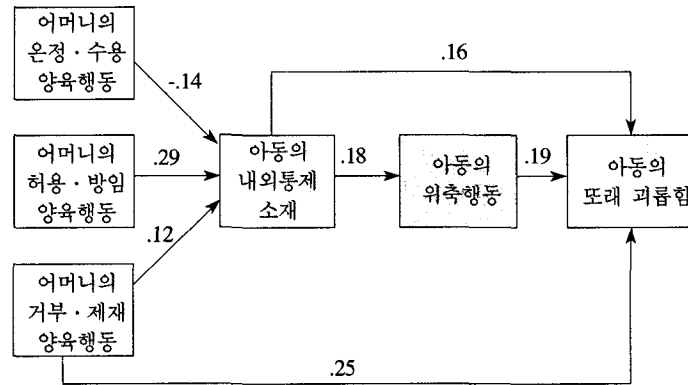
<그림 2>에서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직접적인 영향($\beta = .25, p < .001$)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통하여($\beta = .12, p < .05$)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위축행동($\beta = .19, p < .001$)은 아동의 또

<표 5> 아동의 또래 괴롭힘, 위축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내외통제소재		위축행동문제		또래 괴롭힘	
	B	β	B	β	B	β
아동의 성	-27	-.02	.17	.04	-1.71	-.08
온정·수용 양육행동	-6.72	-.14*	-8.07	-.06	-5.28	-.08
거부·제재 양육행동	7.78	.12*	1.52	.07	.24	.25***
허용·방임 양육행동	.40	.29***	9.73	.02	.14	.07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5.90	.18***	.23	.16**
아동의 위축행동문제					.87	.19***
회귀상수	6.63		2.29		9.31	
R ²	.18		.06		.24	
F값	19.14***		4.81***		19.97***	
D-W	1.78		2.02		2.00	

D-W: Durbin Watson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경로분석 결과

래 괴롭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또래 괴롭힘에 직접적인 영향($\beta=.16, p<.01$)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동의 위축행동을 통하여 ($\beta=.18, p<.001$)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내외통제소재($\beta=-.14, p<.05$)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내외통제소재($\beta=.29, p<.001$)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각 변인이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각변인의 인과효과

독립변인	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의 위축행동문제	.19	-	.19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	.16	.03	.19
온정·수용 양육행동	-	-.02	-.02
거부·제재 양육행동	.25	.02	.27
허용·방임 양육행동	-	.05	.05

IV. 논의 및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 및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상호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경험하는 관계상의 괴롭힘은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상의 괴롭힘은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들(이점숙, 유안진, 1998; 임지영, 1998; Crick & Grotpeter, 1996)과 일치한다. 따라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같이 놀아주지 않는 등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관계상의 괴롭힘은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간접적인 관계상의 괴롭힘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이 참가한다는 연구(Cowen & Underwood, 1995)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명백한 괴롭힘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직접적이고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이점숙, 유안진, 1998; 임지영, 1998; Crick & Grotpeter,

1996; Slee, 1994)과 일치하였다. 즉 남아들은 때리고, 밀고 하는 등 직접적인 공격과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어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남아가 여아보다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아동이 경험하는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은 4학년과 6학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학년과 5학년을 대상으로 관계에서의 따돌림과 명백한 괴롭힘에서 학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연구결과(이점숙, 유안진, 1998)와 일치하였다. 즉 초등학교 중기부터 후기까지 아동의 또래 괴롭힘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관계상의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은 점차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임지영, 1998), 고학년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은 학년에 따라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이영미, 1998; Slee, 1994; Perry, Kusel & Perry, 1988)와는 일치하지 못했다. 이처럼, 관계에서의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의 학년과 성에 따른 일관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이유로 각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괴롭힘에 대한 자기보고 혹은 또래보고, 교사평가, 실험연구, 관찰방법 등 연구방법의 상이함 또는 괴롭힘의 유형의 차이와 괴롭힘의 내용들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나 본다.

둘째, 아동의 또래괴롭힘은 아동의 위축행동문제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아동이 위축된 행동문제를 보일수록 또래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축된 아동이 공격적인 가해자들의 괴롭힘 대상이 된다는 보고(Berk, 1997),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은 상대방의 공격이나 폭력에 대해 허약하고 성공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위축된 행동특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최진희, 2000; Hodges, Malone & Perry, 1995)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의 일치를 볼 때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중요한 행동특성은 위축된 행동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행동특성으로 나타난 공격행동문제는 또래 괴롭힘과 관계가 없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먼저 본 연구에서의 또래 괴롭힘은 아동의 주관적 보고이며 행동문제는 어머니 평가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또래들로부터 소외당하기 쉬운 공격적인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이라도 스스로는 자신을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관적으로 지각 할 수도 있지 않나 본다. 후속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지각뿐 아니라 객관적인 타인의 평가 및 행동관찰이 함께 이루어져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행동특성에 대한 명확한 기제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래들에게 공격적이며, 또래들을 괴롭혀 스스로 괴롭힘을 유발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공격적인 도발적 피해아들은 전형적인 위축된 행동문제로 인한 위축된 피해아 집단에 비해 수가 적기 때문에(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공격적 행동문제와 또래 괴롭힘의 통계적인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또래 괴롭힘은 외재적 통제소재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아동의 통제소재가 외재적일수록 아동은 또래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통제소재의 아동이 또래 괴롭힘을 적게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아동이 또래로부터 소외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개선하여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 노력할 때 또래 괴롭힘도 적게 당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 이러한 가정은 지지되었다. 이렇게 볼 때 학업성취와 적응에 중요한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내재적 통제소재는 원만한 또래관계를 위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또래에 맞추고 또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며 노력하는 아동이 좋은 또래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또래 괴롭힘은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일수록 아동은 또래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불안하고 취약하므로 또래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한다는 보고

(Olweus, 1993),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공격으로부터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이지원, 1999)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중요한 가족환경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괴롭힘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들 변인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지 못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대인관계나 정서적인 안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Patterson, Capaldi & Bank, 1992) 또래 수용도도 떨어지게 하지 않나 본다. 아동의 또래 괴롭힘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또래 괴롭힘은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여아의 또래 괴롭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현심, 199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 괴롭힘을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족환경변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또래 괴롭힘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위축 행동문제가 많을수록 통제소재가 외재적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의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력은 24%이었다. 한편 아동의 행동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한 결과 아동의 통제소재가 외재적일수록 아동의 위축 행동문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은 6%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로 아동이 자신의 행동결과의 원인을 외부의 힘이나 환경에 있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거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더 위축된 행동문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종속변인으로 한 결과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정적 영향을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부적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들이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에 미치는 영향력은 18%이었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일수록, 방임적일수록 아동은 외재적 통제소재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

정적일수록 내재적 통제소재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아동이 내재적 통제 소재에 도움을 주며, 어머니의 거부적,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외재적 통제소재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중희, 1983)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도 아동의 외재적 통제소재와 관련이 있는 것도 나타났다.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존감을 낮게 하며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는 자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Patterson et al, 1992)를 감안할 때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통제소재를 외재화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총인과 효과의 크기를 보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외재적 통제소재를 통하여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나타나 인과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어머니가 아동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아동의 관심이나 흥미와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게끔 요구하는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이 또래 괴롭힘을 당하게 할 수 있는 가족환경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믿는 외재적 통제소재를 가지게 한다. 이리하여 아동은 환경에 대하여 수동적이 되며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능동적으로 해결하려하기보다는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와 행동을 쉽게 포기하여 또래로부터 더 많은 괴롭힘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거부·불안감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또래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는 보고(Olweus, 1993)와 유사하다. 따라서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중요한 위험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아동의 위축행동문제는 또

래 괴롭힘에 두 번째로 큰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즉 아동이 허약하고 위축되어 또래로부터 공격을 당하더라도 방어하지 못하고 수동적이므로 괴롭힘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축행동은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행동특성중 가장 취약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위축된 아동은 보호되고, 나아가서는 이들 위축된 아동의 능동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자발적인 행동을 격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위축행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아동이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원인을 외재적으로 지각하여 또래관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 또래 괴롭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외재적 통제소재는 위축된 행동을 야기하며 더 많은 또래 괴롭힘을 당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통제소재의 내재화는 또래 괴롭힘을 증재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아동의 외재적 통제소재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또래 괴롭힘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직접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적 통제소재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또래 괴롭힘을 감소시키는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직접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아동의 통제소재를 외재화하여 이를 매개로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위험을 높이며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의 통제소재를 내재화하여 이를 매개로 아동의 또래 괴롭힘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경험하는 관계상의 괴롭힘은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명백한 괴롭힘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상의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은 4학년과 6학년 아동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제재적일수록, 아동의 위축행동문제가 많을수록 통제소재가 외재적일수록 또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이들 변인들은 또래 괴롭힘을 24%설명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외재적 통제소재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나타나 인과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위축행동문제는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두 번째로 큰 직접적 효과가 나타났다.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또래 괴롭힘에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위축행동문제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어머니의 허용·방임 및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직접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내외통제소재의 개인적 특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가족환경변인이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가족환경변인이외에 학교환경변인도 또래괴롭힘에 중요한 환경변인이므로 이러한 변인들이 포함된 복합적 모형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또래 괴롭힘은 자기보고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또래괴롭힘에 대한 또래평가, 교사평가 및 관찰방법 등 다차원적인 측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령기 아동의 또래괴롭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즉, 아동의 또래괴롭힘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에 걸쳐 감소되는 경향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저학년 아동이 함께 포함된 학령기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차연, 장연집(1999). 어머니에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51-75.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희(1983). 아동의 내외통제신념과 지각된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2000). 또래간 사회적 관계: 부정적 측면에 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77-89.
- 도현심(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9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박미연(2000).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원경, 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7.
- 이경님(1999). 아동의 자기통제, 통제소재와 행동문제와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문집 제7집*,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이경님(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 이경주, 신호식(1998). 청소년기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유형과 부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8), 39-49.
- 이영미(1989).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와 사회측정적 지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점숙, 유안진(1998).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 이지원(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 곽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13(1), 65-80.
- 임지영(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왜(1989). 학령전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부모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진희(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끼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5). 아동의 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12.
- Anderson, C.A., Horowitz, L.M., & French, R.D. (1983). Attributional style of lonely and depressed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45), 127-136.
- Bagwell, C.L.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ion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 Berk, L.E. (1997). *Child Development(4th)*, Allyn and Bacon
- Berkowitz, L.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5(4), 494-503.
- Boulton, M.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Chen, X., Rubin, K.H., & Li, B. (1997). Maternal acceptance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four-year longitudinal

-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3(4), 663-681.
- Connel, J.P. (1985). A new 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 of control. *Child Development*, 36, 91-109.
- Crick, N.R. & Bigbee, M.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6(2), 337-347.
- Crick, N. & Grotpeter, J.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R. & Grotpeter, J.K. (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6, 367-380.
- Cowen, E.C. & Underwood, M.K. (1995). anger and spice and everything nice?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of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Finnegan, R.A., Hodges, E.V.E., & Perry, D.G. (1996) Preoccupied and avoidance coping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 1318-1328.
- Goetz, T.E. & Dweck, C.S. (1980). Learned helplessness in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246-255.
- Hodges, E.V.E., Malone, M.J., & Perry, D.G. (1995).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Mussen, P.H. (1984).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Vol. 4, John Wiley & Sons.
- Nowicki, S.J. & Strickland, B.R. (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48-153.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J. Peplar & K.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 411-448). Hillsdale, N.J.: Erlbaum.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England: Blackwell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Olweus, D. (1996).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5(7), 1171-1190.
- Patterson, G.R., Capaldi, D., & Bank, L. (1992). Two paths to delinquency: The early and late starter models. In K.B. Rubin & D. Pepler(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 Perry, D.G., Kusel, S.J., & Perry, L.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Schwartz, D., Dodge, K.A., & Coie, J.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chwartz, D., Dodge, K.A., Pettit, G.S., & Bates, J.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 Slee, P.T. (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2), 97-107.
- Slee, P.T. & Rigby, K. (1993). Australian school children's self appraisal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e bullying experienc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3(4), 273-282.
- Slee, P.T. (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2), 97-107.
- Sobol, M.P. & Earn, B.M. (1985). What causes mean:

- An analysis of children's interpretation of the causes in social experi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 137-149.
- Troy, M. & Sroufe, L.A. (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 Vosk, B., Vorehand, R., Parker, J.B., & Richard, K. (1982). A multimethod comparison of popular and unpopular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95-805.